

인사말씀

2023. 1. 22(월) 14:30
은행연합회 14층 중회의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 소 영

※ 본 자료는 보도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것으로, 실제 발언내용은 이와 다를 수 있습니다.

I .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소영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간담회에 참석해주신
외국계 금융회사 CEO 여러분을 비롯해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 등 여러 참석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 금융시장의
국제화 및 선진화에 기여해 오신 여러분과
직접 소통하는 기회를 가지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II . 금융산업 글로벌화 추진 경과

현재 중동·동유럽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
세계 교역의 분절화 등의 대외적 상황은
금융산업의 글로벌화에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도 부동산PF, 가계·기업 부채 등 불안요인과
저성장·고령화 기조 및 경쟁 심화 등으로
금융산업의 성장이 정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확실성과 리스크는
비교적 단기적으로 작용하는 요인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금융국제화가
지속 가능한 성장의 핵심 요인임이
다시금 강조될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 금융의 글로벌화를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해 나가는 것은
금융산업의 가장 중요한 과제중 하나로서,

금융당국은 우리 금융산업의 글로벌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해외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시장이 될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어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및
국내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를 위해
30여년 만에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하고
투자내역 보고의무를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상장법인의 영문 공시 1단계를
올해부터 시행 중입니다.

배당 여부와 배당액을
먼저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배당제도 역시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Ⅲ. 금융산업 글로벌화 추진 방향

외국계 금융회사들이 국내에 더 많이 진출하여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신상품을 도입하는 등
혁신과 경쟁을 촉진한다면
한국 금융산업 발전에 큰 보탬이 될 것입니다.

특히, 국내 금융회사들의 국제경쟁력 제고와
해외진출에 공헌할 수 있으며
한국 주요 도시들의 국제 금융 허브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도 금융산업 글로벌화,
특히 외국계 금융회사들이
국내에서 영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큰 틀에서는
해외 투자자에게 한국 시장의 매력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기업 자체적인 시장평가 개선 노력을 지원하는
기업밸류업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투자자 친화적인 증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외국계 금융회사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애로사항 해소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오늘 제안해주시는 의견을 바탕으로
규제개선 추진의 큰 방향을 마련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순차적으로
업권별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외국계 금융회사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건의사항 및 개선과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를 진행하겠습니다.

해외와 다른 규제 등으로 인한
영업 및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사소하지만 현장에서는 큰 불편을 야기하는
'손톱 밑 가시'를 제거하여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규제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IV. 맺음말씀

외국계 금융회사는
한국 금융산업 발전과 선진화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으며,

앞으로도 한국 경제와 더불어
함께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간담회에서
그간 겪어왔던 애로와 건의사항 등을
가감 없이 말씀해주시고,
규제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비롯하여
한국에 도입되지 않은 새로운 제도 등에 대해서도
다양한 정책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적극적인 규제개선을 토대로
그간 국내에 도입할 수 없었던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출시하는 등
혁신 노력을 지속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